

기아 K5 - 현대 쏘나타 "한판 붙자"



7월 출시 예정인 기아차 중형 세단 K5.

현대·기아차가 올 하반기 신차판매를 놓고 치열한 '집안 싸움'을 벌인다. 동생격인 기아차가 7월 신형 중형 세단 K5 출시를 앞둔 가운데 형님격인 현대차는 이달 말 쏘나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시작으로 쏘나타 파생모델을 차례로 내놓는다. 8월에는 상품성을 개선한 기아차의 쏘렌토 연식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달 초 나온 현대차의 싼타페 부분변경 모델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곧이어 9월에는 기아차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형 스포티지가 출격해 현대차의 신형 투싼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 현대·기아차가 이처럼 승용차와 SUV 주력 차급에서 동시에 신차를 선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K5·쏘나타 "한판 붙자" = 가장 주목되는 승부는 신형 K5와 쏘나타와의 대결이다. 둘 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력 차종인데다 똑같이 '7개의 심장(엔진)'을 내세워 다양한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기아차는 이달 15일 K5 사전계약에 들어가

K5 내달 출시... 신차판매 양보없는 '집안싸움' 쏘렌토 변경 모델 8월에 나와 싼타페와 경쟁 9월엔 소형 SUV 스포티지-투싼 대결 불만

며 다음달 14일 공식 출시 행사를 연다. 기아차가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K5는 '2개의 얼굴과 7개의 심장' 전략을 토대로 전면부가 서로 다른 2개의 디자인으로 출시된다. 또 2.0 가솔린 엔진뿐 아니라 2.0 터보, 1.6 터보, 1.7 디젤, 2.0 LPI, 2.0 하이브리드, 2.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7개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5년 만에 나오는 신차인 만큼 벌써 신형 K5 동호회가 조직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현대차는 이달 말 쏘나타 PHEV를 출시해 시장 선전에 나선다. PHEV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며 배터리는 외부전원(플러그)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이다. 올 초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쏘나타 PHEV는 154마력을 발휘하는 누우 2.0 직분사(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시템 최대출력 202마력(HP)을 구현했다. 7월에는 쏘나타 1.6 터보와 1.7 디젤 모델을 내놓는다.

오는 9월 펼쳐질 신형 스포티지와 신형 투싼과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지는 2010년 우수한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모델로, 신차가 출시되면 월 5000대 이상 판매되며 기아차의 내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투싼은 올해 3월 출시 이후 4월 9255대와 5월 7378대가 판매되면서 최고판매 차종 상위권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 판매의 30%가 중형 세단·소형 SUV = 현대·기아차가 이처럼 중형차와 소형



이달말 출시할 현대차 쏘나타 PHEV.

SUV 차급에서 경쟁적으로 신차를 내놓는 것은 해당 차급이 그만큼 내수판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쏘나타와 K5, 투싼, 스포티지 등 4개 차종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71만8000대가 팔려 전 차종 판매 대수의 29.3%에 달했다. 현대·기아차가 출시한 총 28개 차종 가운데 4개 차종의 판매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이 때문에 4개 차종의 판매 비중이 높았을 때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도 덩달아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4개 차종 판매 비중이 35.2%를 기록했던 2010년에 74.6%에 달했으나 이후 이들 차종의 판매가 줄면서 올해는 65.9%까지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집안 싸움이라는 하지만 한국 자동차시장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과 SUV 차급에서 신차가 집중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 내수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형 SUV 싼타페·쏘렌토, 이젠 5인승이 대세

7인승 세계 혜택 사라져 울 싼타페 구매자 80% 쏘렌토 60% 5인승 선택

중형 SUV 시장이 7인승에서 5인승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차 쏘렌토 등 중형 SUV에서 5인승과 7인승의 비율은 2~3년 전만 해도 5대5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5인승이 7인승을 크게 앞질렀다. 현대차가 지난해 7월 출시한 싼타페 2015년형의 5

인승 비중은 지난해 75%에서 올해는 79%까지 증가했다. 기아차 울 뉴 쏘렌토도 지난해 59%였던 5인승의 비중이 올해는 61%까지 늘어났다. 싼타페 구매자 10명 중 8명이, 쏘렌토 구매자 10명 중 6명이 5인승을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0년 국내 시장에 처음 등장할 때 7인승으로만 나오던 중형 SUV가 5인승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는 세계 변화와 소비자들의 고급화 수요 때문이다.

7인승 SUV는 2004년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만 내면 됐으나 2005년부터 승용차로 변경돼 배기량에 따라 40만~5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세계 혜택이 사라지면서 7인승의 3월

시트를 제거해 더 넓고 고급스러운 5인승을 찾는 고객들이 생겨났다.

2007년 기아차 쏘렌토를 시작으로 5인승이 나온 후에도 'SUV는 7인승'이라는 통념과 흑시나 5명 이상이 함께 타야할 때를 생각하는 소비자층이 적지 않아 한동안은 5인승보다 7인승이 더 많이 팔렸다.

그러나 5인승의 비중은 점차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싼타페와 쏘렌토도 5인승 기본에 3월 시트는 옵션으로 변화했다.

5인승이 7인승보다 넓고 고급스러운데다 연비도 약간 더 우수하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아직 7인승이 저렴한 편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프랑스 기자들이 뽑은 최고 친환경차 '쏘울 EV'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쏘울 EV'가 프랑스 기자들이 뽑은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으로 선정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 EV는 2015 MAAF 환경 자동차 어워드의 도시형 대체에너지 차량 부문에서 수상했다. 2005년 제정된 이 상은 자동차와 환경 부문 기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정한다.

기아차는 쏘울 EV가 유럽기준으로 212km에 달하는 동급 최고의 주행거리와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공간 활용성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친환경차 이미지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쏘울 EV는 전기차 선도국인 노르웨이 소비자 정보 제공 단체 도시이드로부터 '2015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캐나다 자동차기자 협회가 뽑은 '2015 올해의 차' 시티카(City Car) 부문에서도 1위에 오르며 바 있다.

또 세련된 디자인으로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출시된 쏘울 EV는 국내에서도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다. 올해 제주 등 9개 지역의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서 신청을 거쳐 배정된 1천 801대 가운데 쏘울 EV가 가장 많은 41%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단종될 뻔한 다마스·라보 인기는 꾸준하네 울 2846대, 2554대 판매



국내에 두 종밖에 없는 '경상용차' 다마스(왼쪽)와 라보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단종 위기에 몰렸던 다마스와 라보는 지난 5월 한 달간 593대와 442대가 팔려 한국GM의 효자 차종 노릇을 톡톡

히 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는 다마스 2846대, 라보 2554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다마스 618대, 라보 816대)에 비해 3~4배씩 늘어난 수치다. 한국GM은 2013년 12월 새로운 안전·환경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의 단종 철회 청원이 이어지며 정부가 이들 차종에 대한 환경규제와 안전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했고, 지난해 8월부터 재출시됐다. 한국GM 측은 두 차종의 제품 성능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8000~1만km 주행 후 타이어 위치 교환

Q)타이어 위치 교환 주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A)타이어 위치 교환은 앞타이어와 뒷타이어의 위치를 바꿔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 주기는 일반적으로 8000~1만km 마다 해주는 것이 좋으며 주기적인 위치교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륜 타이어의 단차(마모/불규칙적 마모)로 인한 주행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전문 구동 차량의 경우 전문 타이어의 집중 사용으로 인해 타이어 교체 주기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근호타이어 광주지점 제공〉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미락식당 동구 계림동 서빙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방간장게장, 꽃게무침, 갈치조림, 흥어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	정성가득치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신한은행 건물 6층 임플란트, 보철, 치아교정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유화 ☎062)261-228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담, 병점, 시주, 공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062)222-686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광주선불폰·중고폰 북구 중흥동 376-7 동부교육청 건너편 신용불량, 통신연체, 무조건 개통 가능 선불 1만 충전시 (2만원추가충전+유심카드 무료) ☎010-3070-8309 카톡 conta0206	27번가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훈연비베뉴, 기계맥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 ☎062)223-2727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이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앙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천 확장개업 대표 임태백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시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다나베움즈 동구 남동 169-4 (충정로 1가입구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맞춤 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척추교정원 동구 계림동 마시히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 ☎010-8827-7799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놀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리상실옆) 부대찌개, 찌개, 찌개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